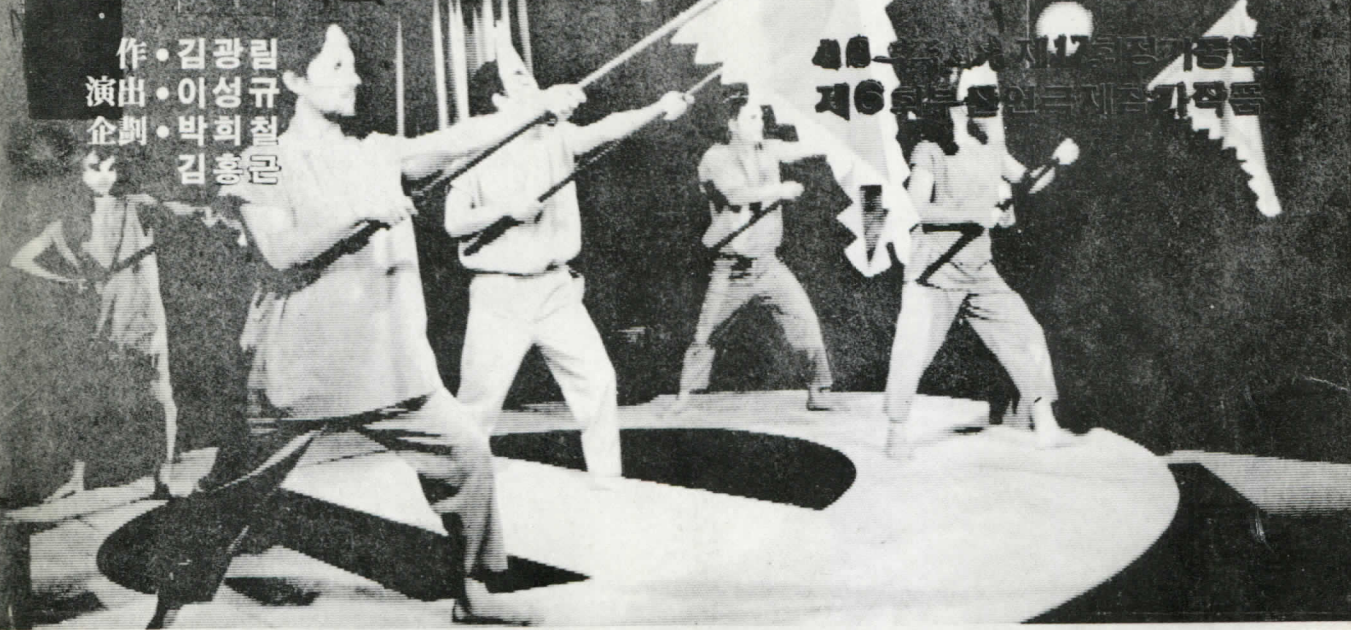


# 달·라·진·저·승

作·김광림  
 演出·이성규  
 企劃·박희철  
 김홍근

48-호국비극제1회장기공연  
 제6회비극인극제준간작품



저승에서 “태평천국의 흥망”을 공연하는 도중 생긴 일들

# 달·라·진·저·승

우리는  
 부당한 폭력에 저항하며  
 공권력의 횡포를 고발한다.

3月 29, 30, 31

(3일간 5:30, 7:30)

시민회관소극장

◎ 나오는 사람들 / 송성엽·박찬영·허대영·김하균·박지일·김미경·김지영·김남옥·김홍규



극단 부두극장

劇團 부두劇場 제 6 회 부산연극제참가작품  
제 17 회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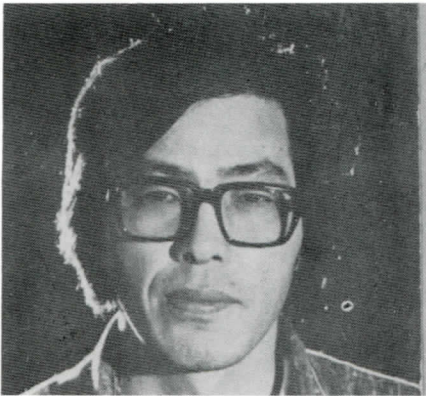
# “달라진 저승”

'88. 3. 29-31 5:30/7:30

시민회관 소극장

김광립 작 / 이성규 연출 / 박희철 기획

## 대표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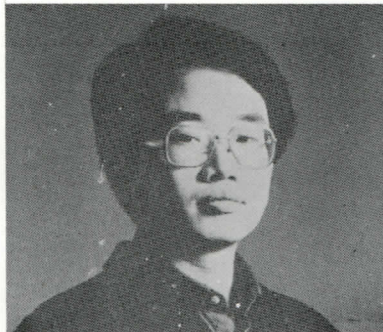
새봄을 맞이하여 저희 부두극단을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연극제를 맞이해서 우선 인사를 드립니다.  
소극장 개관에 대한 기대와 후원, 공연작품에 대한 매운 비판과 격려는 항상 큰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달라진 부두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년전의 만남을 소중히 해주었고 작품의 개작을 허락해준 김광립님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연출 /  
이 성 규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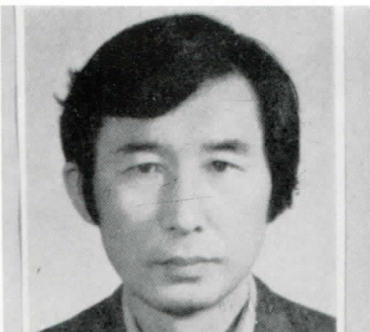
기획 / 박 희 철



무대감독 / 김 홍 근



안무 / 조 인 애



조명 / 김 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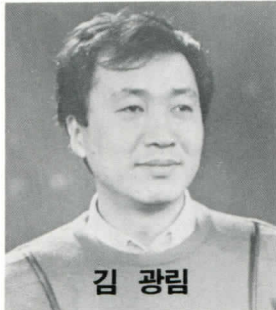


미술·소품 / 이 상 영



의상 / 이 해 옥

## 작가이야기



김 광림

부두극장의 이성규 행과는 1973년 부산대학에서 열렸던 제1회 전국 대학 연극제에서 만났던 사이다.

이제 15년후 '달라진 저승'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흔히 연극을 '본다'라고 말한다. 극장(Theatre)이라는 말이 희랍어의 '보는곳'(Theatron)에서 왔음을 상기하더라도 연극은 보는 예술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본다는것이 꼭 눈으로 보는것만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에서 우리는 본다라는 말을 매우 광범위하게 쓰고있다. 가본다, 들어본다, 느껴본다, 생각해본다... 이 처럼 광범위하게 쓰이는 본다라는 말의 영역은 연극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달라진 저승'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보는 연극이다. 문학적, 사회적, 역사적, 철학적, 심리적, 미학적...등 제영역에 의존하거나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연극이야말로 가장 '연극적'인 연극이며 '보는연극'이 바로 그러한 연극이라고 생각한다.

'달라진 저승'은 이 시대에 팽배한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적 의미를 가진 몇가지 폭력의 형태를 보여줄 뿐, 어느 한쪽 편에 선다거나 또는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극장이 이데올로기의 토론장이거나 도덕강의실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기존의 도덕과 이념을 앞질러간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곡하지않고 보여준다는 점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극중극 '태평천국의 흥망'은 수시로 방해되고 '달라진 저승' 자체도 종종 중단된다. 극중극을 깨는 이유는 배우와 관객이 극중극의 의미—혁명에 대한 환상—에 대해 그들이 연극보다 앞질러가며 편견을 갖게되는 일을 막자는 것이며 극 자체를 깨는 이유는 관객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과 이곳은 극장이라는 현실을 확인케하자는 것이다.

관객들이 마치 세상일을 구경하듯 이 연극을 보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다. 그러한 뜻에서 이 연극이 관객들에게 도덕성과 입장을 강요하지않은 볼거리(Spectacle)를 제공할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공연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극단 부두가 이번 연극제에서 좋은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단원 몇 관계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 안무를 맡고나서.....

조 인 애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다. 연극과 무용의 집합이란 생각보다 힘들었고 환절기인 요즘 계절처럼 상당히 고동스러운 심신들...

안무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장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그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작품전체를 한편의 무용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성격으로 인해 전체형식을 포착한다는것은 안무작업에 있어 어려운 것이었다.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그것을 잘 다듬어서 작품구성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배우자신들의 감정표현에 치우친 움직임과 나의 안무적 창작에 대해 약간의 절제와 절충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그들의 굳어버린 신체를 일정한 형식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신체 기교 즉, 무용적 동작의 이해나 그 사용법을 강도롭게 주의를 기울여 주었고, 나 또한 연극적 안무에 필요한 연극의 구성법에 대해서 작은 지식이라도 가지려 노력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배우들과 나의 노력은 작품 전체의 통일성, 움직임을 미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미흡하나마 나의 창작적 안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배우님들과 이제껏 잠들어 있던 나의 의식을 깨워주신 연출가 이성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